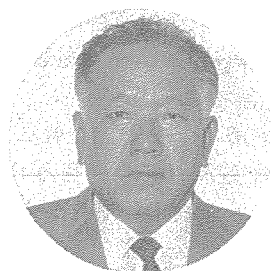


韓國의 경제발전과 農業의 역할

“
農業은
韓國產業의
뿌리
”



朴 振 煥
〈農協大學長〉

◇農村人力이 工業化에 큰몫

유구한 역사를 지니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질 것이 없는 文化民族이었다. 따라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經濟開發은 韓國近代化의 제1차적인 과제로 되고 있었다.

韓國은 부존자원이 모자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되고 있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韓國의 총人口중 농촌인구의 비중은 대단히 높았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農村地域의 인적자원이 개발되는 것이 총체적으로 본 國民資質을 높이는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농촌의 父母世代들은 어려운 家計 속에서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만은 대단히 높았었다. 이것은 바로 孔子文化圈의 學問崇尙의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농촌 父母世代들의 子女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 때문에 1945년의 民族解放 이후 韓國의 젊은이들의 교육수준은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1960년대 이후의 韓國이 급속한 경제적 근대화룰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은 韓國의 경우 인적자원은 수출주도의 공업화를 위해 투입되는 것이 더 많은 국민소득을 생산하는 길이 된다. 여기에서 學校教育을 받은 농촌의 젊은 인력들은 대거 도시와 공장으로 진출함으로써 韓國이 가난한 농업의 나라로부터 新興工業國으로 탈바꿈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都農間의 격차가 문제

이제 韓國은 日本을 뒤쫓아 극동지역에 있어서 또 하나의 先進工業國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농업을 주로 해왔던 韓國이 급속도로 공업화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농민들은 韓國農業의 앞날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농촌도 도시와 같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 초조해 하고 있다.

農民들의 불안과 초조감은 근원적으로는 經濟發展에 따라 농업과 非農業部分 사이의 생산성의 격차가 커지는데서 연유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韓國의 國家的 처지에서는 농업의 생산성이 공업부문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농업은 발달되어야만 하고, 都農間의 균형적 발전은 이룩되어야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 있어서 都農間의 均衡的發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게 되고 우리 農業人들의 분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韓國이 先進工業國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업을 경시하거나 농촌개발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풍조가 조성될 때 그것은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韓國農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우리 農業人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농업에 대한 “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農業의 生産性이 낮기 때문에 농업은 별볼일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는 産業社會이기 때문에 농촌은 한쪽 구석으로 몰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 農民들은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農業問題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農業에 대한 “觀”의 확립이 긴급

여기서 우리는 韓國의 發展에 있어서 農業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農業經濟學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韓國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은 韓國經濟의 근대화 초기의 그것과 韓國이 産業社會로 발전한 단계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근대화 초기에 있어서는 韓國은 농업국이었으므로 농업부문의 성장이 곧 韓國經濟의 성장을 결정하였었다. 그러나 오늘의 韓國經濟의 성장점은 자동차산업, 전

자공업, 철강산업 등으로 바꾸어짐으로써 經濟成長에 있어서 農業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植物體에 있어서 成長點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농학도들은 잘 알고 있다.

國土의 분단으로 南北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都市化와 工業化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안정이 경제의 성장에 못지 않게 중요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은 國家와 社會를 안정시키는 뿌리로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한 농업의 역할을 단순히 GNP성장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國家와 社會를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農村의 역할을 생각하는 “觀”의 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첫째는 韓國經濟의 근대화는 “先 農業發展, 後 工業化”의 일반론적인 방식보다는 “先 工業化, 後 農村開發”의 異例의인 방식에 의해 이룩되었으며, 이와 같은 근대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가장 큰 역할은 농가의 저축여분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투입됨으로써 근대화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로 半導體 産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産業革命時代를 맞이하여 西歐先進工業國들의 경제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孔子文化圈의 기업경제는 활력을 더해 감으로써 韓國經濟의 선진화의 발전은 대단히 밝다는 것이고, 셋째로 그러한 밝은 전망 속에서도 농업부문은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며, 넷째로 都農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는 “農業觀”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經濟가 高度産業社會로 발전함에 따라 농업생산의 經濟的인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더라도 農村의 非經濟的인 역할은 커진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1>이다.

그림에 있어서 X軸에는 年代를 취하고 Y軸에는 農業의 역할을 취하였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는 農業의 非經濟的인 역할이 經濟的인 역할보다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農者天下之大本의 재음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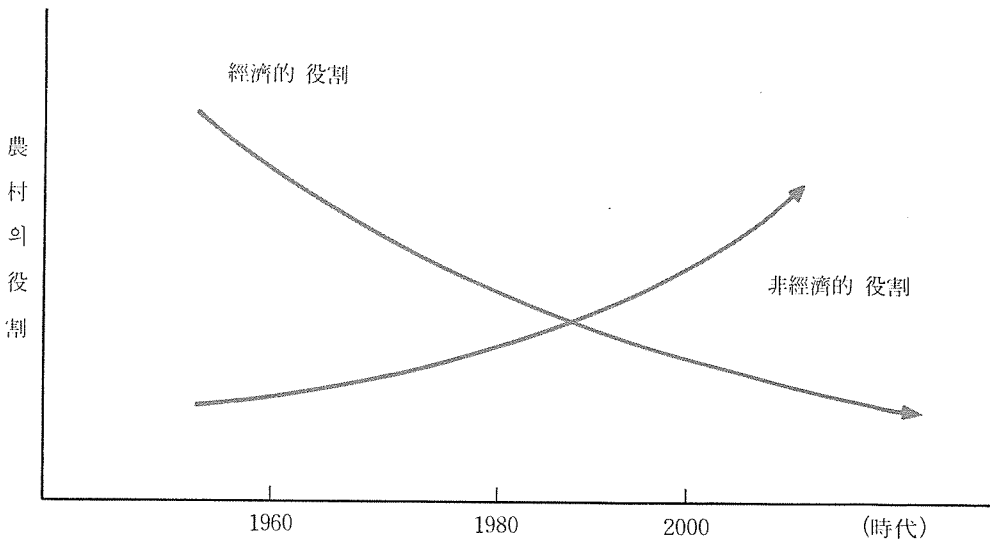
우리의 조상들이 언제부터인가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農”의 경제적 역할만을 뜻함이 아니었고 “農”의 非經濟的 역할까지도 감안한 것이었으며 거기에는 나라의 統治哲學까지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都市化되고 工業化되는 과정에서 조상들의 “農者天下之大本”의 뜻은 퇴색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일찍부터 빨리 퇴색됨으로써 농촌이 흔들리고 일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것까지 지켜지질 않게 됨으로써 혼란을 맞이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日本과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農村을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GNP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관을 안정시키기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곧 政治經濟學的 視角에서 農村을 생각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림-1) 國家發展을 위한 농촌의 역할



휴대용의
非破壞 探傷장치

휴대가 간편하고 매우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는 渦電流 이용방식의 비파괴 탐상장치가 새로 개발됐다. 이 장치

를 이용하면 보호피막을 제거하지 않고도 용접부분 등을 검사하여 소재의 파괴 및 피로를 유발하는 균열 등을 감지해 낼 수 있다.

이 비파괴탐상장치는 필요한 측정매개 변수를 간단히 선택할 수 있는 고감도·광대역 주파수의 측정계기로 구성된다.

또 누름버튼 제어방식을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메뉴선택 방법이나 자외선 照射로 기억내용을 지울 수 있는 판독전용 기억소자에 미리 수록한 정보에 의해 작동된다.

장치는 6.4kg로 매우 경량화되었으며 전원으로 축전지를 사용한다.